

중국 2011년 노동시장 현황 분석 및 2012년 전망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박사과정(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 머리말

지난 1월 17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2010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둔화하였지만 2011년도 국내총생산액(GDP)은 47조 1,564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처럼 중국경제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9%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1년 중국 노동시장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훈풍이 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취업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전체 노동력의 8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그러나 2011년 각종 원자재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추가 인상, 대출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들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2012년 중국사회형세 분석 및 예측(2012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이하 '사회형서')³⁾과 '2012년 중국경제형세 분석 및 예측(2012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1)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ats.gov.cn/tjfx/jdfx/t20120117_402779443.htm에서 볼 수 있다.

2) 张立群(2012), 「2011~2012年经济形势分析与展望」, 『2012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58.

3) 汝信·陆学艺·李培林(2012), 『2012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预测, 이하 ‘경제청서’)⁴⁾ 및 노동시장 관련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2011년 중국의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2012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201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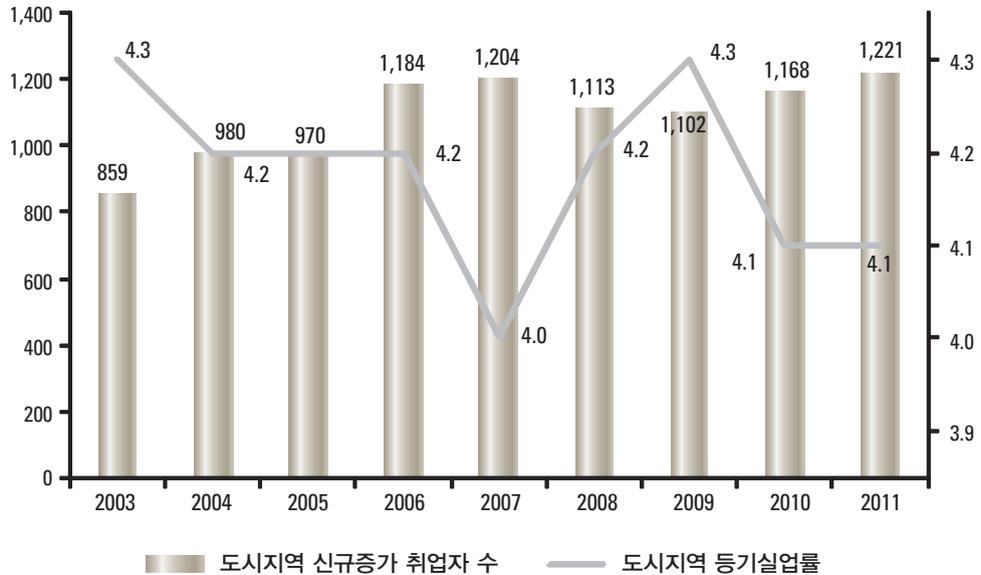
고용시장 대체로 안정,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1%

2011년 중국의 고용형세는 경제성장세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부분 업종과 산업이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양호한 경제적 환경을 제공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지난 1월 20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2011년도 4분기 기자회견⁵⁾에서 2011년 전국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1,221만 명으로 2011년 한 해 목표치인 900만 명의 136%를 달성했고, 도시지역 실업자 재취업자 수는 553만 명으로 한 해 목표치인 500만 명의 111%, 취업곤란자 취업자 수는 180만 명으로 목표치(100만 명)의 1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연말 현재,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1%라고 밝혔다. 한편 인청지 대변인은 2011년 신규취업자 수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1,221만 명으로 경제성장세의 둔화 속에도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경제성장의 지탱작용, 즉 중국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발전하면서 특히 서비스업, 3차 산업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흡수에 중요한 작용을 했고, 아울러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취업지원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 陈佳贵·李扬(2012), 『2012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5) 자세한 내용은 <http://www.scio.gov.cn/xwfbh/gbwxfbh/fbh/201201/t1087243.htm>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 중국 도시지역 등기실업자 수 및 등기실업률 추이



주: 2011년 통계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11년도 4분기 기자회견 내용임.

자료: 중국통계국, 연도별 인력자원(노동)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다소 감소, 구인배율 증가

‘중국노동력시장 정보넷 모니터링 센터(中国劳动力市场信息网监测中心)’가 전국 91개 도시 지역 공공직업소개서비스기구에서 수집한 2011년 4분기 노동시장 직업수급 상황정보에 의하면,⁶⁾ 고용단위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채용한 인원은 448.6만 명, 노동시장에 진입한 구직자 수는 429.8만 명으로 나타났고, 구인배율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3 높게 나타났다. 노동수급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조사대상 지역인 81개 도시와 비교하면, 2011년 4

6) 2011년 4분기 일부 도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시장수급상황 분석(2011年第四季度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content/2012-01/19/content_691703.htm에서 볼 수 있다.

분기의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는 각각 36.6만 명, 43.9만 명 줄어들어 각각 9.2%,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동기대비 동부지역의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는 각각 14.4만 명(7.7%), 14.7만 명(8.1%) 감소했고, 중부지역의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는 각각 21.4만 명(17.6%), 23.9만 명(20.6%) 감소했으며, 서부지역은 각각 8천 명(0.9%), 5.3만 명(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1년도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요·공급상황

	조사규모 (도시수/총인구)	노동수요	노동공급	구인배율
1/4분기	101/1.8억 명	5,157,441명	4,805,561명	1.07
2/4분기	102/1.84억 명	5,258,185명	4,929,115명	1.07
3/4분기	103/1.8억 명	5,778,566명	5,530,275명	1.04
4/4분기	91/1.74억 명	4,486,371명	4,298,354명	1.04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지난 시절 중국 농민공은 주로 중·서부지역에서 경제가 발달된 동부 연해지역으로 유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동부 연해 공업지역의 산업고도화로 미숙련 노동집약형 산업이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또한 중국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전략, 중부 굴기전략 및 동북 진흥전략 등으로 내륙지방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이 지역의 고용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⁷⁾ <표 2>에서 보듯이, 동부지역의 구인배율은 1 이상이고, 중·서부지역의 구인배율은 2010년 1분기 1을 넘어선 이후 줄곧 1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1년 1분기 이후 동부지역은 물론 중·서부지역까지 구인배율이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서부지역 노동력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지역별 고정자산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투자는 지난해 대비 21.3%, 중부지역은 28.8%, 서부지역은 29.2% 증가하였고, 산업 부가가치는 동부지역이 11.7%, 중부지역이 18.2%, 서부지역이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stats.gov.cn/tjfx/jdfx/t20120117_402779443.htm).

〈표 2〉 지역별 구인배율

	동부	중부	서부
2010년 1/4분기	1.07	1.00	1.01
2010년 2/4분기	1.00	0.98	1.01
2010년 3/4분기	1.01	0.96	0.95
2010년 4/4분기	1.02	1.02	0.97
2011년 1/4분기	1.09	1.05	1.07
2011년 2/4분기	1.08	1.07	1.04
2011년 3/4분기	1.04	1.05	1.04
2011년 4/4분기	1.03	1.08	1.03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2차 산업의 노동수요 소폭 증가

2011년 4/4분기 노동수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은 1.3%, 2차 산업은 40.4%, 3차 산업은 57.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차 산업의 노동수요는 5.9% 증가했지만, 3차 산업은 5.4%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81.7%의 노동수요가 제조업(32.5%), 도소매업(15.1%), 숙박요식업(12.6%),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9.7%),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7.6%) 및 건축업(4.2%)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제조업과 건축업의 노동수요는 2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80.3%, 10.4%로 두 업종이 2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90.7%를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3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25.9%, 21.7%, 16.7% 및 13.1%로 이들 4대 업종이 3차 산업 전체 노동수요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조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주민 및 기타서비스업의 노동수요의 비중은 각각 5.0%, 0.7% 및 0.6% 증가했고, 건축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0.6%, 2.9% 및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1년 산업별 노동수요 현황

(단위: 명,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4분기	95,007 (1.8)	2,014,965 (39.1)	3,047,469 (59.1)
2/4분기	98,743 (1.9)	1,940,421 (36.9)	3,219,021 (61.2)
3/4분기	108,999 (1.9)	2,374,922 (41.1)	3,294,645 (57.0)
4/4분기	59,357 (1.3)	1,813,508 (40.4)	2,613,506 (57.7)

자료: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522.htm).

사영기업, 주식제 경제 등 비공유제 부문의 노동수요 비중이 가장 높아

노동수요를 사용자별로 살펴보면, 2011년 4분기 기업이 97.1%로 전체 노동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관, 사업단위(비영리단위)의 노동수요 비중은 0.7%에 불과했다. 기업의 노동수요 가운데 내자기업(内资企业)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로 이 중 사영기업(22.7%), 유한책임회사(28%)와 주식제 유한회사(11.6%)의 노동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국유기업, 집체기업 등 공유제 기업의 노동수요는 3.9%로 나타났다. 또한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의 노동수요는 7.4%, 외상투자기업은 8.2%, 자영업은 9.3%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내자기업의 노동수요 비중은 4.2% 감소했고,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노동수요 비중은 각각 2.9%,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 비중이 가장 높아

2011년 구직자의 대부분은 실업자와 농민공이었다. 2011년 4분기 구직자 중 실업자의 비중이 52.8%로 가장 높았고, 이 중 신규증가 실업청년의 비중은 23.9%(당해 연도 대졸자 비중은 40.6%), 마찰적 실업자는 15.5%, 기타 실업자는 13.4%로 나타났다. 농민공의 비중은 35.8%로 이 중 당해시 농촌출신자는 16.1%, 타지출신자는 19.7%로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와 농민공의 비중은 88.6%로 전체 구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4〉 2011년 소유제별 노동수요 상황

(단위: 명, %)

	1분기(수요/비율)	2분기(수요/비율)	3분기(수요/비율)	4분기(수요/비율)
기업	4,988,760 (96.7)	5,081,952 (96.7)	5,584,854 (96.7)	4,355,460 (97.1)
내자기업	3,910,979 (78.5)	3,969,104 (78.1)	4,083,170 (73.1)	3,270,324 (75.1)
국유기업	125,519 (2.5)	113,999 (2.2)	111,581 (2.0)	105,919 (2.4)
집체기업	110,071 (2.2)	90,226 (1.8)	82,436 (1.5)	65,959 (1.5)
주식합작기업	176,609 (3.5)	162,202 (3.2)	182,762 (3.3)	162,283 (3.7)
연합경영기업	99,353 (2.0)	104,353 (2.1)	80,729 (1.4)	76,278 (1.8)
유한책임회사	1,646,552 (33.0)	1,697,574 (33.4)	1,630,914 (29.2)	1,221,575 (28.0)
주식유한회사	535,535 (10.7)	575,128 (11.3)	596,986 (10.7)	505,254 (11.6)
사영기업	1,087,597 (21.8)	1,097,209 (21.6)	1,256,632 (22.5)	989,348 (22.7)
기타기업	129,743 (2.6)	128,413 (2.5)	141,130 (2.5)	143,708 (3.3)
대만, 홍콩, 마카오투자기업	250,799 (5.0)	278,871 (5.5)	400,829 (7.2)	322,388 (7.4)
외상투자기업	296,661 (5.9)	304,273 (6.0)	528,977 (9.5)	358,363 (8.2)
개체경영	530,321 (10.6)	529,704 (10.4)	571,878 (10.2)	404,385 (9.3)
사업단위	20,071 (0.4)	21,619 (0.4)	25,530 (0.4)	21,242 (0.5)
기관	9,424 (0.2)	11,705 (0.2)	11,933 (0.2)	8,850 (0.2)
기타	139,186 (2.7)	142,909 (2.7)	156,244 (2.7)	100,819 (2.2)
합 계	5,157,441(100.0)	5,258,185(100.0)	5,778,566(100.0)	4,486,371(100.0)

자료: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의 비중은 6.2% 감소했고(이 중 당해 연도 대졸자 비중은 8.9% 감소), 마찰적 실업자는 0.9% 감소했으며, 농민공 중 당해시 농촌출신자는 1.4% 증가했고, 타지 출신자는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2000~2010년 중국의 연도별 대학 졸업자 수는 107만 명에서 630만 명으로 6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2011년 대졸자 수는 2010년보다 30만 명 늘어난 660만 명으로, 취업재수생 규모까지 감안하면 대졸자의 취업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대졸자의 취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1년 5월 새로운 정책조치⁸⁾를 내놓았고, 또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

진해 온 ‘3년 100만 대졸자 취업 견습계획,’ ‘3支1扶’ 정책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임에 따라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 특히 당해 연도 졸업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5〉 구직자별 노동공급현황

(단위: 명, %)

	2011년 1/4분기 (구직자수/비중)	2011년 2/4분기 (구직자수/비중)	2011년 3/4분기 (구직자수/비중)	2011년 4/4분기 (구직자수/비중)
신규증가실업청년	1,187,004 (24.7)	1,243,218 (25.2)	1,342,412 (24.3)	1,026,969 (23.9)
당해연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생	483,465 (40.7)	577,700 (46.5)	630,891 (47.0)	417,150 (40.6)
전직과정 실업자	844,465 (17.6)	832,907 (16.9)	859,263 (15.5)	666,815 (15.5)
기타 실업자	645,434 (13.4)	678,260 (13.8)	693,242 (12.5)	576,194 (13.4)
재직자	259,829 (5.4)	267,714 (5.4)	279,970 (5.1)	225,767 (5.3)
면직자(하강)	163,230 (3.4)	179,757 (3.6)	161,885 (2.9)	127,468 (3.0)
퇴직자	31,831 (0.7)	40,482 (0.8)	33,079 (0.6)	25,252 (0.6)
재학생	150,531 (3.1)	168,524 (3.4)	136,606 (2.5)	110,373 (2.6)
당해시 농촌인원	907,151 (18.9)	839,538 (17.0)	895,962 (16.2)	692,684 (16.1)
타지 출신자	616,086 (12.8)	678,715 (13.8)	1,127,856 (20.4)	846,832 (19.7)
합 계	4,805,561 (100)	4,929,115 (100)	5,530,275 (100)	4,298,354 (100)

자료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학력별로 노동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약 89%의 사업체가 구직자의 학력을 제한하였다. 고졸 학력이 전체 노동수요의 40%(이 중 직업학교, 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는 6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졸 이하(23.6%), 전문대 졸(17.4%), 대졸 이상(7.9%)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자의 학력은 고졸이 41%(이 중 57.9%의 구직자는 직업학교, 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 졸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졸 이하(26.5%), 전문대 졸(21.5%), 대졸 이상(11%) 순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율은 중졸 이하가 1.04, 고졸 1.14, 전문대졸 0.96, 대졸 0.86 및 대학원 졸 0.95로 나타났

8) 关于进一步做好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工作的通知

다. 이를 통해 2011년 중국 노동시장은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선노동자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학력수준이 높은 대졸자의 구직난이 병존하는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교육수준별 구인배율

(단위: 명,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졸 이하	1.21	1.15	1.10	1.04
고졸	1.14	1.16	1.12	1.14
직업·기술·중등전문학교	1.35	1.36	1.36	1.35
전문대졸	0.93	0.95	0.94	0.96
대졸	0.84	0.85	0.85	0.86
석사 이상	0.98	0.91	1.07	0.95

자료: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chinajob.gov.cn/DataAnalysis/node_1041.htm).

노동자 소득 증가, 노동분쟁 발생건수 감소

2011년 한 해 동안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산시(山西) 등 중국의 31개 성(省), 자치구(自治區) 및 직할시(直轄市) 가운데 2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22% 인상했다. 월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선전시(深圳市)로 1,320위안이었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시(北京市)로 13위안이였다.⁹⁾ 2011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평균총소득은 23,979위안이고, 이 중 1인당 가처분소득은 12,810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701위안(14.1%) 늘어났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외하면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증가율은 8.4%로 지난해보다 0.4% 증가했다.¹⁰⁾

9) <http://news.sina.com.cn/c/2011-12-30/022423719096.shtml>(검색일 2012년 1월 28일).

10) http://www.stats.gov.cn/tjfx/jdfx/t20120120_402780174.htm(검색일 2012년 1월 28일).

고용상황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임금이 인상되면서, 2011년 노동분쟁 사건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9월까지 전국 각급 노동인사쟁의조정중재기구에 수리된 노동인사분쟁 사건 수는 93.3만 건으로, 이 중 각급 중재기구에 수리된 사건 수는 42.8만 건으로 2010년 같은 기간 44.31만 건과 비교하면 3.41% 감소하였다.¹¹⁾

노동분쟁의 원인은 주로 임금, 경제보상 및 배상금, 보험복지 등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에서 2011년 상반기 동안 임금 때문에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은 15,564건으로 전체 노동분쟁사건의 53.8%를 차지했고, 경제보상 및 배상금과 관련된 사건은 8,173건으로 전체의 28.25%, 보험복지와 관련된 사건은 3,305건으로 전체의 11.42%를 차지해 세 가지 사건이 전체의 93.47%를 차지했다.

집단적 노동분쟁¹²⁾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단적 노동분쟁은 대부분 방직, 의류 및 전자업종 등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적이면서도 계획적이고 폭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집단적 조업중단, 즉 파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집중'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지역집중으로 주로 주강삼각주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둘째, 기업유형 집중으로 주로 외자기업이나 홍콩, 대만계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계층집중으로 주로 80后(빠링호우,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자), 90后(지우링호우,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자)의 신세대 농민공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요구집중으로 절반 이상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열악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시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¹³⁾

11)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1年第三季度新闻发布会, 자세한 내용은 <http://www.scio.gov.cn/xwfbh/gbwxwfbh/xwfbh/rlyzhshbzb/201110/t1033710.htm>에서 볼 수 있음.

12) 집단적 노동분쟁은 중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노동자 일방 10인 이상의 분쟁을 말한다.

13) 乔健(2012), 「2011~2012年:和谐劳动关系新政」, 『2012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 257~259.

■ 2012년 중국 노동시장 전망

현 단계 중국 노동시장에는 노동력 부족현상(招工难), 대학생의 구직난(大學生就业难) 및 농촌 잉여노동력의 이전난(农村富余劳动力转移难) 등 3難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형세이다. 다시 말해, 2004년에 동부 연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출현한 계절성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이미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고, 대졸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농촌 노동력이 더욱더 고령화되면서 2차, 3차 산업으로의 이전이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사회발전 연구소 양이용(杨直勇) 소장은 '2012년 경제청서'에서 2012년 중국 취업업무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불확정요인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취업업무의 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중국 노동시장에 가장 부정적인 대외적인 환경요소로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또한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통화팽창 압력으로 2012년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정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수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중국 고용형세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중국 국내적인 환경요소로 인민폐의 평가절상, 노동력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및 경제성장세의 둔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고, 신규취업, 실업자 재취업 및 농촌잉여 노동력의 이전 등이 함께 교차하면서 노동력 총량 모순과 구조적 모순이 충돌하면서 구조적, 주기적 실업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긴축정책, 유동성 통제 및 대외무역 감소 등의 원인으로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양이용 소장은 글로벌 경제구조의 조정이 가속화되고, 신흥시장경제국가의 지위가 격상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해외투자전략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경제발전공간을 확대하며 취업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전략적 기회와 양호한 국제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내적으로는 GDP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경제 기초 위에 그동안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업우선발전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고, 산업구조의 발전과 경제의 자

생적 성장동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은 2012년 중국 고용형세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1년 중국경제는 매 분기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둔화하였지만 여전히 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직업안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 중국 노동시장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중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요인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대외적으로 살펴보면,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대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대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노동시장의 만성적인 모순인 노동력 초과공급을 들 수 있다¹⁴⁾. 또한 노동력 부족현상과 취업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농민공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있는 각종 사회제도도 2012년 중국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중국정부가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KLI**

14) 통계자료에 의하면, '12차 5개년(2011~2015년)'에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7,000만 명으로 늘어나 노동력 자원이 최고봉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도시지역에서 매년 취업이 필요한 노동력은 대략 2,500만 명으로 지난 '11차 5개년(2006~2010년)' 기간과 비교하면 100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대졸자는 매년 약 700만 명이고, 중학교, 중등전문학교, 직업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인원이 700만 명이며, 여기에 제대군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500만 명의 노동력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중국 노동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노동력은 1,200만 명으로 나머지 1,300만 명의 초과공급이 존재한다.